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zumisano-si's Measure to Overcome Financial Crisis

김형근*, 정재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동산학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Kim Hhyeong-Geun*, Chung, Jae-Ho**

Daejeon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Administration.*, Mokwon University**

요약

일본 오사카 센난 지역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泉佐野) 재정위기는 1994년 간사이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시작하였다. 공항 개항에 맞추어 시립 이즈미사노시 병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중 이용자 감소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세수가 늘지 않고 재정이 악화되자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泉佐野)시 지방재정 위기 극복사례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2006년 홋카이도 지역 유바리시(夕張市) 파산에 이어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지방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이즈미사노시는 1994년 750억엔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간사이국제공항 건설 및 기업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린쿠타운 기업진출 지연과 경기침체로 세수(稅收)가 감소되고 재정을 악화시켜 2009년 「지방 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이하 '지방재정건전화법' 이라한다)에 따라 조기 건전화단체가 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이즈미사노시를 방문, 지방재정위기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¹⁾

II. 「지방 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 고찰 및 재정운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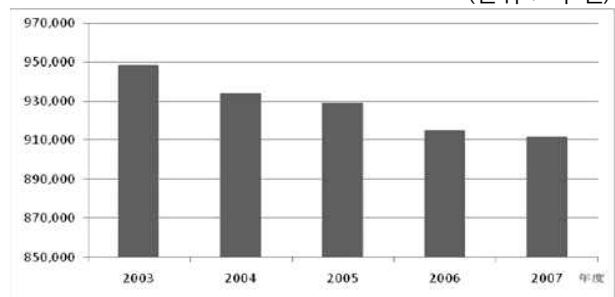
일본은 지나친 국가의 관여와 지방채 발행에 의한 시설투자,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저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채무 누적으로 2009년 지방재정건전화가 된 단체는 33개소에 이르러 '지방재정건전화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조기시정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조기시정시스템은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 및 특별구)에서 매년도 건전화 비율(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공채비율, 장래부담비율)을 감사위원 심사에 회부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건전화 판단비율 중 어느 하나가 정령에서 정하는 '조기건전화기준' 이상일 때에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계획은 지방공공단체 스스로가 실천하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1. 세입·세출 추이

2007년 세입은 91조 1,814억 엔으로 2003년 95조엔 규모에 비해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세출은 89조 1,476억 엔으로 사회보장비용 증가(민생비용 7,176억엔 증가)와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사회비용 지출 규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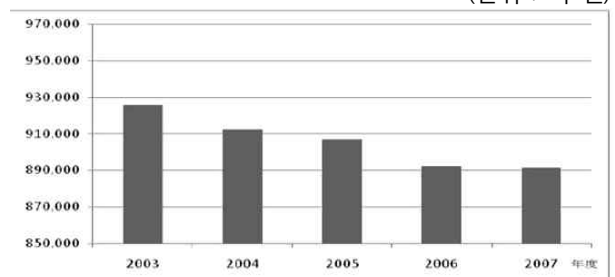
(단위 : 억 엔)



出處 : 總務省 「2007年度 地方公共團體普通會計 決算の概要」

▶▶ 그림 1. 세입추이

(단위 :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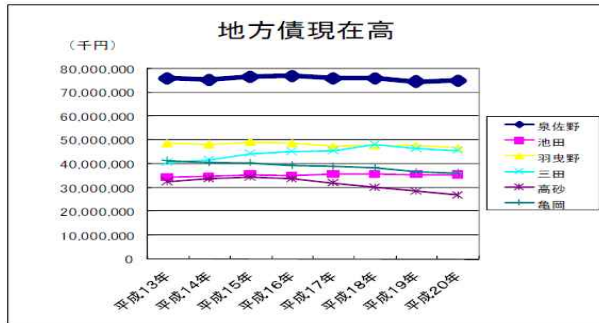


出處 : 總務省 「2007年度 地方公共團體普通會計 決算の概要」

▶▶ 그림 2. 세출추이

1)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조기건전화(2009~2027년까지, 19년) : 택지조성사업폐지, 유류재산처분, 인건비삭감, 공공시설통폐합, 사업경비 삭감 등

이즈미사노시 지방채 발행은 1989년 165억엔에서 2001년 771억엔으로 606억엔의 채무가 급증하였으며, 이케다(池田)도시 보다 높다.



出處：總務省「2007年度 地方公共團體普通會計 決算の概要」

▶▶ 그림 3. 지방채 현재고

2. 이즈미사노시 지방재정 위기

1) 간사이국제공항 건설

정부 및 오사카시는 간사이 국제공항건설을 통해 린쿠타운(Rinku Town)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향후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방세 증대를 기대하였다. 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부담으로 하고 향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형태로 간사이 국제공항 건립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항 이용자 감소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채무 상황능력이 되지 않아 2009년 '지방재정건전화법'에 따라 조기 건전화 대상이 되었다. 일본학계에서는 이즈미사노시 지방재정 악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유도·강요 해 온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시립 이즈미사노시 병원

1994년 간사이 국제공항건설에 따라 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며 외국에서 감염된 질환에 대해 응급치료를 요하는 관점에서, 시민뿐 만 아니라 간사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린쿠종합의료센터인 「시립이즈미사노 병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1997년 개설이후 매년 10억엔 이상의 경상비 손실이 되었으며, 2008년 의사부족과 일부진료과를 중단하게 되어 16억 엔 손실로 이어졌으며 누적채무액이 135억엔을 초과하였다.

III. 이즈미사노시 재정위기 극복방안

1. 명명권(Naming Rights, 命名權)

지방세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입 확보 방안으로 기업에서 광고료를 받는 대신 이즈미사노시 도시의 이름을 회사이름이나 제품이름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地名을 판매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2. 유희재산 매각

택지조성사업회계를 폐지하고 기존 택지조성사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유희 재산처분 및 저수지, 마을길, 수로(水路)를 매각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3. 세출예산 절감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은 사업경비 삭감과 직원 인건비 및 수당삭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병원사업 회계는 업무위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였다. 또한, 재정건전화 실시를 위해 시청 직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원(2011년 720명에서 2015년 628명으로 92명 감축)하고, 사업예산 투자적경비 519억엔(2011년 14,426백만엔, 2015년 13,907백만엔)을 절감하였다.

IV. 시사점

지방자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은 각 지방정부 스스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즈미사노시 지방재정 위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건전화법에 따라 실질적자비율 3.75% 이상, 실질공채비율 25% 이상, 장래부담비율 400% 이상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계획을 의무화하고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원리금 상환 등 향후 부담해야할 부채에 대해 강력한 재정관여와 주기적인 분석 및 진단시스템을 통해 지방 재정흐름을 감시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재정 공개를 의무화하여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이즈미사노시 재정위기 사례를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선언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방을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와 지방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있다.

■ 참고 문헌 ■

- [1] 김경덕(2007),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개요, 한국법제연구원, p.33~38.
- [2] 木信之(2007), 「新しい地方財政再生制度究報告書について」 『地方財政』, p.118.
- [3] 関西社会経済研究所 (2008) 「地方自治体の財政健全性に関する評価」, p.1~3
- [4] 総務省(2008), 「2007年度 地方公共團體普通會計 決算の概要」
- [5] 兼村高文(2008), 「財政健全化と自治体運営」 税務経理協会
- [6] 早期健全化團體泉佐野市(2010), 関西大学林宏昭研究会財政分科会
- [7] <http://www.city.izumisano.osaka.jp>
- [8] <http://www.soumu.go.jp>